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4px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반 박</div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배포	2021.12.8(수)	김수빈 사무관(02-2100-2833) 변경홍 사무관(02-2100-2752) 이병현 사무관(02-2100-2753)
	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선 욱(02-2100-2750)				

**제 목 : 그동안 금융위원회 조직은,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
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변화되어 왔습니다.
[서울경제, 12.8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]**

1. 기사내용

□ 서울경제는 12월 8일 「금융정책·감독 일원화했더니... 모피아 머릿수 2배 늘었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
- ① “금융그룹감독혁신단 등 3개의 국장급 한시조직도 있다.”... (중략)...
- ② “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별 정원 현황에 따르면 151명으로 출발했던 금융위 머릿수는 현재 320명쯤 된다.”... (중략)...
- ③ “금융위는 민간 협회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십명씩 파견을 받아 잡무를 시키는 ‘갑질’이 여전하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사항

- ① ‘21.12월 현재 금융위원회內 국장급으로 운영중인 별도 한시조직은 코로나19 관련 비상금융 조치 등을 담당하기 위한 「금융안정지원단」 1개 조직입니다.

② '08.3월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 금융위원회 정원은 209명(소속기관 포함)이며, '21.12월 현재 정원은 320여명 수준으로 운영 중입니다.

- 동기간 금융위원회의 정원 증가는 금융위기 대응, 공적자금관리 강화, 기업구조조정 대응, 주식불공정행위 근절, 금융소비자보호 강화, 혁신금융 육성,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등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금융현안 및 이슈에 적의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보강된 조직 및 인력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증원한 것으로서, 단순한 조직 불리기와는 무관합니다.

③ 한편, 금융위원회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의4에 근거하여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고 있습니다.

- 민간전문가의 원소속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,
- “민간 협회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십 명씩 파견을 받아 잡무를 시키는 ‘갑질’이 여전하다”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자리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